

청백리 문충공(文忠公)

위로는 나라님뿐인 만인지상 영의정

벼슬이 태산인데

재물은 티끌같이 여겼다

정승 자리 익숙했을 문충공 이원의

벼슬길 스스로 내려온 뒤

백성들 뜻 하늘같이 받들었다

공(公)이 귀하게 여긴 것은

울고 웃는 여염집 소리

백성들 삶 한평생을 우려했다

됨됨이는 넘쳐흐르고

몸가짐은 낮은 데 향했으니

물이 된 마음에 무슨 시름 있었을까

공의 삶은 태산보다 높고 컸다

곳간 대신 오두막 짓고

바람 같은 청빈만 들인 공

새끼 꼬며 가마니 짜며

하루하루 거미처럼 산 삶이라

바랄 것도 아쉬울 것도 없었겠지

오로지 욕심 있었다면

오래오래 어우러지고 싶었을 터

내 죽은 날 새기지 말라 했으나

어느 누가 비운 삶 기리지 않을까

후손들은 공의 삶 본보기로 삼겠네